

以影補來 표기의 동기와 ㄹ중성 음절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하여*

차익중**

목 차

1. 들어가며: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2. 이영보래 ㄹ에 대하여
3. 입성 개념의 재음미
4. ㄹ중성 음절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하여
5. 결론 및 남은 문제

<국문초록>

이 연구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중 ‘ㄹ’, 이른바 이영보래(以影補來)의 동기와 ㄹ중성 음절의 음운론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동국정운 서문, 사성통고 서문 등 중세 조선의 기록과 중국의 성운학 문헌 속 기록, 현대 성조언어학 연구를 탐구한 결과 15세기 조선 운학가들이 인식한 입성이란 促急한 자질을 가리키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입성을 운미 분절음의 종류와 동일시했던 통념과 다른 결과로서, ‘ㄱ, ㄷ, ㅂ’ 중성 음절이 고유어에서는 平上去 세 가지 성조로 두루 나타나고 한어 입성이 한국 한자음에서는 거성과 같다는 훈민정음 해례의 기록은 성조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유어 관형사형 어미 ㄹ 및 ㄹ 표기 구성, 사이시옷의 ㄹ 표기를 두루 관찰한 결과 15세기의 ㄹ은 후두긴장 자질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였다. 이영보래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2878).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ㄹ은 ㄹ과 다를 뿐 아니라 ㄹ과 ㄱ의 연속 발음도 아니며, 후두긴장 자질이 더해진 ㄹ의 변이음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특히 고유어 관형사형 어미의 ㄹ 표기에서는 후두긴장 자질을 설정하는 것이 폐쇄음과 마찰음을 모두 포함하는 경음화 현상을 기술하는 효과적 방법이 된다.

주제어: 以影補來 표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입성의 개념,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 경음화, 후두긴장 자질.

1. 들어가며: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이 연구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중 ‘ㄹ’, 이른바 以影補來 표기의 동기와 ㄹ중성 음절의 음운론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영보래가 15세기 전승한자음 중 舌內入聲 운미 ㄹ을 교정하기 위한 표기법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흥미로운 점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성해에서는 전승한자음의 설내입성 자리에 來母 중성 ㄹ 대신 端母 ㄷ가 와야 함이 마땅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훈민정음 창제와 동국정운 편찬에 관여했던 15세기 운학가들이 당초 생각했던 교정 방법은 ‘以端代來’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¹⁾

그러나 동국정운이 실제로 채택한 표기는 중성ㄹ을 유지하고 다른 문자를 덧붙여 ‘補’ 즉 보충하는 방법이었다. 게다가 그 방식도 이미 正則 중성으로 인식했던 ‘ㄷ’을 보충하여 덧붙이는 ‘以端補來’도 아니고, 以影補來였다. 이 특이한 표기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그 동기나 실체에 대한 논의는 의외로 풍성하지 않다. 그간의 대체적 학설은 전승한자음 중성 ㄹ을 유지한 채 흔히 성문폐쇄음이라 하는 影母를 중성 자리에 덧붙임으로써 입성을 교정하려는 ‘절충’적 방법이었다고 풀이한다. 여기서 절충이란

1) ‘以端代來’, ‘以端補來’는 필자가 선택한 용어다. 구체적 논의는 본론에서 진행한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즉 전승한자음 중성 그대로의 발음을 유지하되 ‘ㄹ’만 덧붙인 형식적인 표기였던가? 아니면 한어 원음에 가까운 발음을 의도하는 장치였던가? 이때 원음에 가깝게 발음한다는 것은 입성이 제대로 교정되었다는 뜻일까? 이 경우 이영보래 표기 음절의 음운론적 실체는 어떠한가?

이 연구는 이영보래 표기가 한어 원음의 중성 ‘ㄹ’을 환기하는 형식적 장치라고 단정하기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는 이 문제를 다음 두 질문으로 변환하여 제기한다.

(가) 이영보래 ㄹ의 음성적 실체와 음운론적 성격은 무엇인가? ㄹ은 ㄹ과 같은 소리인 형식적 장치인가? 아니면 ㄹ만의 어떤 소리를 지향한 것인가?

(나) 이영보래 ㄹ 표기의 동기는 무엇인가? 특히 고유어 관형사형 구성에 나타난 ㄹ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ㄹ’로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연구 자료로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四聲通攷 서문 속의 입성 관련 기술, 月印釋譜, 釋譜詳節 등 15세기 언해 자료 속의 ㄹ 표기 양상을 주로 대상으로 삼는다. 아울러 고대 및 중세 한어성운학 관련 문헌의 기술은 물론 현대 성조언어학의 논저도 참고한다.

2. 이영보래 ㄹ에 대하여

2.1. 以端代來에서 以影補來로

동국정운 서문은 字母之變, 七音之變, 清濁之變, 四聲之變 등 중세 전승한자음의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 중 四聲之變에서 舌內入聲字의 중성이 來母로 발음되는 모습을 지적한다.

우리 말소리에는 사성의 구분이 뚜렷한데 한자음에서는 상성과 거성의 구별이 없으며, 質韻, 勿韻과 같은 韻들은 마땅히 端母로써 종성을 삼아야 하나 속된 발음은 來母를 씌으로써 그 소리가 늦고 완만해져서 입성이 되지 못하니, 이것이 四聲의 변화다.

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 質勿諸韻 宜以端母爲終聲 以俗用來母其聲徐緩不宜入聲 此四聲之變也

입성이 본래 빠르고 급한[促急] 소리인데 종성이 ㄹ로 변화하면서 ‘소리가 늦고 완만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훈민정음 해례 終聲解에서도 나타나지만 종성해는 ㄹ 종성을 ‘ㄷ’으로 교체하는 방안[以端代來]를 취한다.

또 반설음 ㄹ은 우리말에서는 쓰는 것이 온당하지만 한자음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가령 驚과 같은 입성자에서는 종성을 마땅히 ㄷ으로 써야 하나 속습에서 이를 ㄹ로 읽고 있으니 ㄷ이 변하여 가벼워진 것이다. 만일 驚 字의 종성으로 ㄹ을 삼으면 그 소리가 퍼지고 느려져 입성이 되지 않는다.

且半舌之ㄹ 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如入聲之驚字 終聲當用ㄷ 而俗習讀爲ㄹ 蓋ㄷ變而爲輕也. 若用ㄹ爲驚之終 則其聲舒緩 不爲入也.

‘驚’의 음을 ‘별’으로 교체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한어원음의 발음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유어에도 ‘ㄷ’ 종성이 어말에 존재하였기 때문에²⁾ 한자음을 교정하는 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 대신 이영보래를 선택한 것이다.

이 특이한 표기에 대하여 그간의 연구는 전승한자음의 ‘ㄹ’을 유지하는 쪽을 택하면서 다만 ㅎ을 덧붙여 보충한 ‘절충’이라 이해한 입장이 다수였다(남광우 1966:9, 안병희 2002: 185, 강신항 2003: 218 각주 56). ‘일종의 타협책(河野六郎 1968: 269)’이라는 지적도 큰 차이가 없다.

2) 1음절 명사의 경우·간(筥), :난(穀), ·난(鎌), ·문(釘) 등.

그런데 여기서 ‘절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발음은 중성 ㄹ을 그대로 유지하되 입성 표기용 기호로 ‘ㅇ’을 덧붙인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ㄹ중성은 ‘ㄹ’과 음운론적으로 동일하며, 이영보래는 문자론적인 환기 장치에 불과할 것이다. 단편적이긴 하나 이렇게 단정하는 견해도 보인다 (이동립 1970: 145, 차익중 2014: 53 각주8). “억지스러운 방법(정인승·성원경 1973: 11)”이라는 평가절하도 이와 비슷하게 여겨진다.

이영보래의 音相 혹은 음운론적 실체가 전승한자음과는 달랐으리라고 가정하는 입장도 보인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발음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안병희 2002:185)”라거나 “ㅇ음을 보충하여 ㄷ음에 가깝게 나타내 보이려 한 것(강신한 2003: 184, 각주 259)”이라는 풀이가 그것이다. 전승한자음 그대로서의 중성 ㄹ과 다른, ‘ㄷ에 가까운’, ‘올바른’ 발음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음운론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補하였다(이승녕 1958: 75)’거나 ‘補充하였다(강신한 2003: 184, 각주 259)’는 설명도 눈에 띄지만 이는 이영보래라는 용어를 존중한 것일 뿐 교정음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영보래 표기로서의 ㄹ이 어떤 음운론적 실체를 부여받았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영보래 표기가 전승한자음의 ㄹ중성 음절과 음성적 성격이나 음운론적 성질에 아무 차이가 없는 문자론적 장치에 불과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동국정운 편찬자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음미하는 일이다.

2.2. ㄹ은 ㄹ과 다른가?: 동국정운 서문의 재음미

동국정운 서문은 후반부에서 교정원칙을 종합하고 있는데, 설내입성의 교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대목이 있다.

又於質勿諸韻 以影補來因俗歸正 舊習譌謬至是而悉革矣.

주목할 곳은 ‘因俗歸正’이라는 구절이다. ‘因俗’이란 속음을 존중하고 유지했다는 뜻이며, ‘歸正’이란 이로써 올바른 음[正音]을 회복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고전문헌의 해독 면에서 특별히 어렵지 않다.³⁾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 구절의 번역과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또 質物의 諸韻에는 ‘影’으로 ‘來’를 도와 俗習에 因하여 바름에 돌아오니 舊習의 그릇됨에⁴⁾ 이에 이르러 모조리 고쳐졌사외다(홍기문 1946하: 210-211).

또 質韻과 勿韻과 같은 운들의 운(여기서는 운미음을 말함)은 影母(즉 ㄱ)와 來母(즉 ㄹ)를 보충하여, 俗習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잡으니 옛 습관의 잘못됨이 이에 이르러 모두 고쳐졌다(강신항 2003: 219).

속습을 ‘因’하였다거나 속습을 ‘바탕’으로 했다는 위의 번역은 ㄹ중성을 유지하는 방침이 설내입성 교정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입성은 버릇을 따라 이영보래로써 교정”한 것이라는 풀이(김민수 1980: 134)도 같은 해석이다.

반면에 因俗歸正을 다르게 새기는 경우가 있다. “質韻, 勿韻 등은 이영보래로 속음을 바로잡아 정음에 맞게 한다(정경일 2002: 82).”는 서술은 속음을 폐지했다는 의미이므로 서문의 본뜻과 충돌한다. “ㄹ중성의 음에 이르러 이영보래로 속된 것을 바로 잡는다.(홍기문 저 이상규 외 주해본 2007:304)”⁵⁾는 주해 역시 서문의 의도와 어긋나는 해석이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又於質勿諸韻 以影補來因俗歸正’

3) 국어사의 중요 자료로 거론되는 三國史記에도 因의 이 용법은 빈번하다. 가령 禦侮縣 本今勿縣 一云陰達. 景德王改名令因之. 金山縣 景德王改州縣名及令 並因之 [三國史記 雜誌 第三 地理 新羅 開寧郡條].

4) ‘그릇됨이’의 誤植으로 보임.

5) 이 해설 부분은 주해자의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르겠다. 같은 주해본의 서문 번역 부분에서는 “影(ㄱ)으로 ‘來(ㄹ)’를 보충하여 속습에 따라 바로 잡았으니 구습의 그릇됨이 이에 이르러 모두 고쳐졌다.”고 적절히 옮기고 있다.

부분을 이렇게 옮긴다.

또 質, 勿과 같은 韻들은 影母로써 來母를 보충하니 세속의 발음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올바른 음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렇다면 세속의 발음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올바른 발음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지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강신항(2003: 184, 각주 259) 이상의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한 자음의 실제와 입성의 축급한 특징을 살려서 표시(유창균 1966: 121)”하였다는 지적도 여기서 크게 나아가지 않는다. 이동림(1970: 145)에서는 “현실 음 치중”이라는 지적뿐이다.

분명한 점은 동국정은 편찬자들은 전승한자음 중성 ㄹ을 유지하면서도 입성을 온전히 교정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볼 때에는 이영보래 ‘ㄹ’은 형식적 장치가 아니며, 전승한자음 중성 ‘ㄹ’과도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한 입성의 성질은 무엇이었던가? 중성 t(ㄷ)라는 분절음을 교체하여 넣지 않고서도 입성을 온전히 교정했다고 인식했다는 것은 그들이 입성 개념을 분절음과 다른 차원에서 생각했음을 말해준다.

3. 입성 개념의 재음미

3.1. 중세 조선 기록 속의 입성

15세기 조선 운학가들이 입성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는 훈민정음 해례 본과 언해본 속의 기술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소리에겐 느낌과 급함의 차이가 있으므로 평성 상성 거성은 입성의 축급함과 같지 않다. 불청불탁 자는 그 소리가 거세지 않으므로 중성으로는 평성 상성 거

성에 마땅하다. 전칭 차칭 전탁 자는 그 소리가 거세므로 마땅히 입성의 종성에 써야한다. 그러므로 ㅎ, ㄴ, ㄹ, ㄱ, ㅋ, ㆁ 이 여섯은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그 밖의 소리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

聲有緩急之殊，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不清不濁之字其聲不勵，故用於終聲則宜於平上去全清次清全濁之字，其聲爲勵，故用於終則宜於入。所以 ㅎ ㄴ ㄹ ㄱ ㅋ ㆁ 六字爲平上去聲之終，以餘皆爲入聲之終也。

오음의 느리고 급함[緩急]으로 말하자면 각기 상대하는 소리가 있는데, 牙音에서는 ㅎ과 ㄱ가 상대하고 (중략) 喉音에서는 ㅎ과 ㅋ가 완급으로 상대하는 것과 같다. 또 반설음 ㄹ은 마땅히 우리말[言]에서는 쓰이지만 한자음[文]의 입성자에서는 쓰일 수 없다. 가령 驚의 종성에는 ㄷ을 씀이 마땅하나 속습에서는 ㄹ로 읽고 있으니 ㄷ이 가벼운 소리로 변한 것이다. 만일 ㄹ을 驚의 종성으로 쓰면 곧 그 소리가 퍼지고 느려지므로[舒緩] 입성이 되지 못한다.

五音之緩急 如各自爲對與牙之 ㅎ 與 ㄱ 爲對 (중략) 喉之 ㅎ 與 ㅋ 其緩急相對 亦猶是也。且半舌之 ㄹ 當用於言而不可用於文如入聲 驚 字 終聲當用 ㄷ 而俗習讀爲 ㄹ 蓋 ㄷ 變而爲輕也，若用 ㄹ 爲 驚 之 終 則 其 聲 舒 緩 不 爲 入 也。

모든 자음(오음)에 ‘거셈(厲)’ 여부에 따라 완급이라는 성질이 내재해 있으며, 입성은 평상거 성조와 달리 이 자음의 완급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인식이다.

입성을 완급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태도는 훈민정음의 例義 중 방점과 성조 체계를 언급하는 부분에도 나타난다. (방점과 한자음은 생략하며 띄어쓰기는 본고의 것. 【 】 안은 언해문 속의 쌍행 협주).

左加一點則去聲 【左는 왼너기라 加는 더울싸라. 一은 하나히라. 去聲은 못 노픈 소리라.】 왼너기 ㅎ 點덤을 더으면 못 노픈 소리오.

二則上聲 【二는 둘히라. 上聲은 처서미 ㄴ갓고 乃終이 노픈 소리라.】 點덤이 둘히면 上聲이오.

無則平聲 【無는 업슬싸라. 平聲은 못 ㄴ가불 소리라】 點덤이 업스면 平聲

이오.

入聲加點同而促急【입성은 썰리긋는 소리니라, 促急은 ㅼ를써라.】입성은 ㅼ 더우믄 ㅎ가지로되 ㅼ를니라.

언해본은 평성, 상성, 거성의 성조값[調值]을 음高의 차이로 언급하고 입성이 ‘促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한문본의 ‘促急’에 해당하는 내용을 ‘ㅼ를다’고 언해하고 있는데, 이는 해례본 중성해의 ‘緩急’ 구절의 ‘急’과 일맥상통한다. 15세기 조선 운학가들이 생각한 입성의 본질은 ‘빠르다’는 성질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해례본 습字解에도 성조의 방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음高와 入聲의 특질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말의 平上去入 성조는 활(弓)이 평성이 되고 :돌(石)이 상성, ·갈(刀)이 거성이 되며, ·분(筆)이 입성이 되는 것과 같다. (중략) 그러나 한자음(文)의 입성은 거성과 비슷하되, 우리말의 입성은 일정하지 않아서 긴(柱), 녀(脅)처럼 평성과 비슷하거나 :난(穀)·깃(繒)처럼 상성과 비슷하거나 ·못(釘)·입(口)과 같이 거성과 비슷한 것처럼, 입성 점을 찍는 것은 평성, 상성, 거성과 같이 취한다.

諺語平上去入 如 활 爲弓而其聲平 :돌 爲石而其聲上 ·갈 爲刀而其聲去 ·분 爲筆而其聲入之類 (중략) 而文之入聲 與去聲相似 諺之入聲無定 或似平聲 如 긴 爲柱 녀 爲脅 或似上聲 如 :난 爲穀 :깃 爲繒 或似去聲 如 ·못 爲釘 ·입 爲口之類 其加點則與平上去同.

강신항(2003: 163 각주 121)은 ‘文之入聲’ 운운한 대목이 12세기 이후 한어 북방음에서 입성이 소실되면서 거성으로 변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풀이한 바 있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ㄷ, ㅂ’ 중성으로 끝나는 음절이 평상거 어느 성조로도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합자해의 예에는 없으나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ㄱ중성 어휘(녀, ·박[瓢], ·썩[艾], :속[內] 등)까지 포함시키면 15세기 한국어에는 ‘ㄱ, ㄷ, ㅂ’을 중성으로 취하는 고유어 음절이 ‘입성’

이라는 하나의 성조를 취하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⁶⁾

조선 운학가들의 입성 인식은 한어에 대한 관찰에서도 나타나는데 같은 시기 한어의 성조에 대한 소상한 기술이 신숙주의 四聲通攷에 있다. 사성통고는 洪武正韻譯訓의 刊本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전하지 않으나 범례가 최세진의 四聲通解(1517)에 실려 있다.

입성 여러 운들의 중성은 남방음에서는 지나치게 분명한 쪽으로 변하고 북방음은 느린 쪽으로 변화하였는데 (중략) 본운[洪武正韻]을 만들 때韻이 같은 것은 합하고 서로 다른 것은 나누었으나 入聲의 여러 운에서 牙舌脣音 終聲은 모두 구별하여 섞지 않았다. 이제 ㄱ ㄷ ㅂ으로 중성을 삼아 그대로 ㄱ ㄷ ㅂ으로 발음하면 또 이른바 남방음처럼 되므로 다만 가볍게 쓰되 급히 마무리하되 너무 분명하지 않게 함이 좋다. 또 지금의 俗音[今俗音]은 비록 중성을 쓰지 않더라도 평상 거성의 느린 것과 같이는 되지 않으므로 모든 운의 속음 중성은 喉音의 전정인 ㅎ을 쓰되 藥운의 중성은 순경음의 전정인 ㅎ을 써서 이를 구별하였다.

入聲諸韻終聲 今南音償於太白 北音流於緩弛 (중략) 本韻之作 併同析異而入聲諸韻牙舌脣終聲 皆別而不雜 今以 ㄱ ㄷ ㅂ爲終聲 然直呼以 ㄱ ㄷ ㅂ則又似所謂南音 但微用而急終之 不至太白可也 且今俗音 雖不用終聲 以不至不如平上去之緩弛 故俗音終聲於諸韻 用喉全清 樂韻用脣輕全清 ㅎ以別之

이 기록은 중세 한어음의 입성 소실은 물론 방언의 실태에 대한 기술이 기도 하다. 북방음의 입성이 느려졌다[弛緩]는 것은 입성의 소실을 밝히는 기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사성통고에서도 입성의 특징은 ‘促急함, 빠

6) ㄱ중성을 취하는 1음절 고유어 자립어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2음절 이상의 자립어(막다히[支] 등)는 물론 1음절 동사 어간까지 포함하면 15세기 한국어에서 ‘ㄱ, ㄷ, ㅂ’ 중성을 취하는 고유어 음절에 대한 기술은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7) 홍무정운역훈은 총 6권 중 권1,2가 現傳하지 않는다. 권1에 마땅히 포함되어 있었을 범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성통고와 같다는 것이 학계의 판단이다(박병채 1983: 33). ‘本韻’을 홍무정운으로 이해함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 운미 'p, t, k'도 그 느리고 빠름의 정도에 따라 입성의 자격에 들고 남 혹은 맞고 틀림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도출하게 된다.⁸⁾

사성통고의 기술은 입성의 표기에 ㅎ을 사용한 동기도 시사한다. '급하게 마무리 하지 않는' 입성 표음을 위해 ㅎ을 운미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분명'한 쪽으로 변화한 남방음과는 다른 '正則 입성' 혹은 '정칙의 促急함'이라는 성질을 구현하기 위해 ㅎ을 사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 한어음운사 문헌 속의 입성

사성의 존재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남북조시대 沈約의 四聲譜 등에서부터 발견되는데, 이처럼 옛 중국인이 기록한 자료와 함께 시경의 협운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성조의 체계 혹은 종류(調類)에 대한 연구가 근대부터 꾸준히 발전되었다(唐作藩 2002: 54~56, 최영애 2000: 288~290). 반면에 성조의 소릿값[調值]에 대한 옛 자료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最古의 것으로는 唐代 元和韻譜(806~827)가 꼽히며, 明代의 승려 釋真空의 玉鑰匙歌訣 역시 중요한 기록으로 취급받는다.

평성은 슬프고 편안하며 상성은 거세고 드세며 거성은 맑고 멀며 입성은 곧고 빠르다.

平聲者 哀而安 上聲者厲而舉 去聲者清而遠 入聲者 直而促(元和韻譜)

平聲平道莫低昂, 上聲高呼猛烈强, 去聲分明哀遠道, 入聲短促急收藏

8) 남방음의 입성이 지나치게 분명해서 ㄱㄷㅌ 즉 아음 설음 순음의 전청자를 쓰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사성통고의 주음은 15세기 한국어가 아니라 한어음을 표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마도 편찬자인 신숙주가 관찰한 남방 방언의 성조 상황이었으리라. 본고의 주된 관심이 한국어 음운사에 있으므로 더 자세한 것은 한어성조 변천사 연구에 기대한다.

(玉鑰匙歌訣)⁹⁾

이들 기록은 심리적 인상의 영역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연구자에게도 그 의미가 모호하다. 다만 여기서도 입성의 특징을 促(直而促) 혹은 促急(入聲短促急收藏)¹⁰⁾이라 쓰고 있음을 주목한다.

중고 한어 성조에 대한 더 분명한 기술로 일본 승려 安然의 悉曇藏(880)이 있는데, 表, 金, 正法師, 聰法師라는 네 사람의 발음을 기록하고 있기에 현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중 表에 대한 기록만 살펴본다.

表에서는 平聲은 곧고 낮으며 輕과 重이 있다 하고 上聲은 곧게 오르며 輕은 있으나 重은 없다. 去聲은 조금 끄는데 輕도 없고 重도 없다. 入聲은 급히 멈추는데 內도 없고 外도 없다. 平聲의 次濁音은 重과 다르지 않다. 上聲의 重音은 去聲과 구분하지 않는다. (이지영 2008:62의 역)

表則平聲直低有輕有重. 上聲直昂有輕無重. 去聲稍引無輕無重. 入聲徑止, 無內無外. 平中怒聲與重無別. 上中重音與去不分

이 기록은 사성의 調值를 중세인의 시각에서나마 기술하려고 시도한다. 물론 音高와 長短의 자질이 뒤섞이고, 輕重이나 內外의 개념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Mei(1970: 110)은 이 구절을 비롯한 悉曇藏의 기술을 주된 근거로 “입성은 짧되 음고(pitch)와 굴곡성(contour)은 분명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¹⁰⁾ 덧붙여 입성이 거성과 같이 높은 음고 혹은 굴곡성을 지닐 가

9) 이 구절은 모호하다. 거칠게나마 옮긴다면 다음의 정도일 것이다. “평성은 고르며 낮지도 높지도 않다. 상성은 높고 맹렬하며 강하다. 거성은 또렷하며 슬프면서 멀다. 입성은 짧고 급하며 감춰진다.”

10) “entering tone: short, with uncertain pitch and contour.(Mei 1970: 110). 한편 丁邦新(1998: 79)은 이를 수정하여 “입성은 促調이다. 高低는 말하기 어렵다. 길이는 짧다.”고 주장하였다. Mei(1970)는 중고한어에 대한 옛 기록과 베트남 한자음 등을 주된 근거로 삼아 사성의 고저, 장단의 특성을 운모와 성모 양 측면에서 최대한 추론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어의 성조 발생 기원을 운미 자음의 소실 결과로 파악했던 Haudricourt의 시도에

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Mei 1970: 104)¹¹⁾, 이는 훈민정음 해례와 언해본의 기술에서 한어 입성이 거성과 같다고 증언한 점과 상통한다.

한자음의 입성은 흔히 ‘-p, -t, -k’를 중성으로 지니는 음절의 특성으로 일컬어지는데,¹²⁾ 앞서 15세기 조선 운학가들이 생각한 입성 개념이 분절음과 다른 차원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절에서 한어성운학 관련 문헌의 기술과 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반도 바깥의 문헌에서도 역시 입성을 ‘p, t, k’라는 운미 분절음과 동일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입성 개념의 재음미

성조(tone)란 고저 장단 강세 등 음향 자질이 음절에 얹혀 음운론적 변별성을 띠는 현상 즉 운소(phosodeme)의 한 부류다. 가령 중고 한어의 상성과 거성, 현대 한어의 陽平(제2성), 상성, 거성은 한 음절 안에서의 연속적인 음고 변화 즉 굴곡성 (pitch contour)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입성은 어떠한가? 중고한어의 입성과 현대 한어 남방 방언의 입성은 주로 음절말 분절음의 종류로서 규정되기 때문에 다른 성조류에 비해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입성을 곧 운미자음의 존재로서 정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입성운 역시 해당 음절에 부가되는 음고의 자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현대 한어 남방 방언은 입성에도 굴곡성조를 지니는 것으로 표상된다.¹³⁾

자극을 받아 한어 성조의 기원도 운미 자음 소실에서 찾은 노력으로 주목받았다. 한어 성조연구사에 대한 한국어 문헌은 정진강(1998), 이지영(2008) 등.

11) 운미 무성폐쇄음이 높은 음고(high pitch)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하나 충분한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보한 것이다.

12) “중국의 전통음운학은 상고한어의 운부를 음성운 양성운 입성운 세 성조로 구분하며, 입성운은 무성폐쇄음 [p, t, k]를 韻尾로 지니는 韻을 가리킨다. 中國傳統音韻學把上古漢語的韻部分爲陰陽入三聲, 入聲韻指以清色音 [p, t, k] 收尾的韻 (王力 1995:477).” “일반적으로 韻尾輔音[운미 자음-필자]이 塞音[폐쇄음-필자]인 것을 通名하여 入聲韻이라 한다(董同龢 공제석 역 1975:166).”

중세 한국어에서는 고유어 음절말 자음이 ‘ㄱ, ㄷ, ㅂ’이어도 평성, 상성, 거성을 취하였으며(그럭, 녘, 뉘[이상 평성], :집[상성]), 전승한자음에서는 입성이 거성과 동일한 성조값을 취한다. 운미 ‘p, t, k’를 입성운의 필요충분조건처럼 간주하는 것은 중고한어의 성조 구조를 절대시하여 기술한 결과일 뿐 입성운의 개념적 정의를 말하는 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 입성을 운율의 일부이라는 측면에서 해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현대 성조언어학은 입성운에도 음고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¹⁴⁾ 특히 한어의 경우 핵모음의 음고 이외에도 분절음의 종류나 발성 유형(phonation type)과 같은 非音高[non-pitch] 자질이 성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¹⁵⁾

아래의 [표]는 이러한 성조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성조는 레지스터(register), 음장(length), 음고(height)의 세 층위 구조를 이루며, 각각의 세 가지 이상의 하위 층위로 구성된다. 레지스터 층위¹⁶⁾는 유무성(voiceless/voiced, vl/vd), 가성(falcetto), 기식성(breathy), 짜내기(creaky) 등의 발성유형(phonation type) 혹은 후두자질(laryngeal feature)에 따라 상(Upper), 중(Mid), 하(Lower)로 다시 구분된다. 모음 자질이 아니라 후두자질이 레지스터 층위의 상중하 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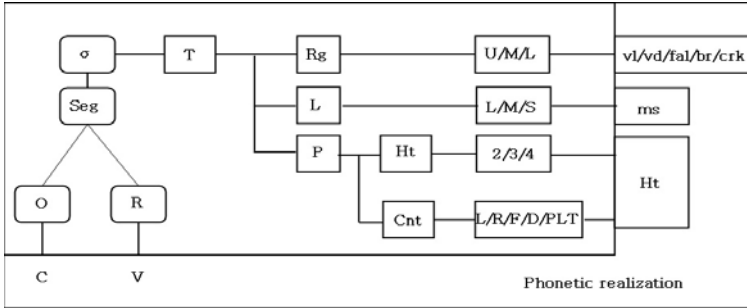
13) 吳方言권을 대표하는 蘇州 방언은 陰入 4, 陽入 23, 粵方言권 중 廣州 방언은 上陰入 5, 下陰入 33, 陽入 22 또는 2를 음고형으로 지닌다.(北京大學中國語文學系 語言學教室編 1995: 20, 33) 上下의 구분은 5단계 성조를 二分하는 音域(register)의 차이이며, 陰陽의 분화는 聲母의 유무성 여부에 따른 것이다.

14) 가령 Yip(1980)은 聲母의 유성성과 같은 후두자질이 음고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즉 유성 성모가 低調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15) Gao, Hallé and Draxler(2020: 583), Zhu & Wang (2015: 503-504), 모이라 입, 손남호 역(2013: 123-132) 등. 특히 다음 쪽의 [표] 참조.

16) 레지스터 층위 설정은 Yip(1980)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후의 연구를 반영하여 후두자질의 요인을 명세화한 것이라 생각된다.

(표) 성조 총위와 음절 총위의 구분(Zhu & Wang 2015:504).



현대 언어학의 연구를 참조하여 중세인 혹은 고대인들의 성조 관련 기술을 음미하면 그들의 기술이 주관적이고 인상비평적인 수준이었다고 폄하하기 어렵다. 그들이 입성을 분절음의 종류로 설명하는 대신 음운적 자질을 표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것이다.

15세기 조선의 운학가들은 입성의 성질이 ‘促急 빠름’이며, 촉급 성질이 종성 분절음과 별개로 부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입성운은 촉급 성질에 따라서 한자음은 거성으로 고유어는 평상거에 걸쳐 나타날 수 있었다. 다만 한자음의 입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종성 ㄹ을 유지하되 촉급한 성질이 부가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면 그만이었다. 즉 ㅎ을 부가하여 설내입성을 실현시키려 하는 의도의 표기였다. ㄹ은 ㄹ과 다른 소리였으며, 단순한 문자론적 부호를 결합한 표기는 아닌 것이다.

4. ㄹ중성 음절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하여

4.1. ㄹ이 ㄹ과 ㅎ의 연속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제 종성의 ㄹ이 ㄹ과 어떻게 다른 소리였는지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넘어서야 할,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바로 ㄹ을 두

분절음의 연속으로 파악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ㄹ중성의 속음은 그 편씩대로 내고 ㅇ중성의 입성음은 이 편씩대로 내는 것인지 ㄹ중성에 연하여 ㅇ의 중성을 내는 것인지 그 것이 未詳하다. 오즉 因俗歸正 이영보래라는 말만은 전자의 경우에도 못 쓸 것이 아니로되 후자의 경우에 더 적절히 안할까고 해석된다(홍기문 1946상: 182).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론할 수 있다. 먼저 15세기 훈민정음 표기에서 중성 겹자음이 보이는 양상이다. 중세의 훈민정음 표기 문헌에서 중성의 겹자음 표기는 뒷자음이 연결되어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ㄹ] 늘근 선빅를 보시고(龍歌 82)

[ㅁ] 슬믈 핑(訓蒙下 12)

[ㅁ] 짜홀 불보덕 물 불듯호고(석상6: 34)

[ㄴ] 麟衆의 낙슬 놀라(永嘉下: 77)

이 예들은 중성의 기저음이 두 분절음의 연속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반면에 이영보래 ㄹ은 ㅇ를 후행음의 초성으로 표기한 예가 전혀 없다. 물론 동국정운 한자음이 음절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¹⁷⁾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겠다. 그러나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이영보래와 비견되는 고유어 표기 속 ㄹ은 역시 이런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¹⁸⁾

반론의 두 번째는 중세 훈민정음 표기 문헌에 나타나는 ㅇ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 중세 훈민정음 표기 문헌에서 ㅇ은 사잇소리 표기, 이영보래 표기,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ㄹ이 취하는 통사적 구성에서 나타난다.

17) 동국정운 한자음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별도로 논한다.

18) 고유어 표기 속의 ㄹ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1] 사잇소리 표기의 예: 攸는 所^ㄹ字 흔가지오(月釋序:10ㄱ)
- [2] 동국정운 한자음: 초성의 影母표기와 이영보래 표기(용례 생략)
- [3]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
 지바로 도라오실 제(龍歌 18), 오실 길혜(釋詳23: 6ㄴ)
 佛道求 ㄹ사르미(月釋15: 60ㄱ) ~ 正定求 ㄹ싸르미(楞嚴7: 65ㄴ)

사잇소리는 경음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은 국어학계에서 대체로 경음화 현상이 수반되는 구성으로 이해해 왔다. 특히 ‘求 ㄹ사르미 ~ 求 ㄹ싸르미’가 같은 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은 ㄹ 표기가 이 구성의 경음화를 나타내기 위함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선행 연구 역시 이를 인정하는 흐름이 줄기차다. 이기문(1972/1998: 109)은 중세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先代形이라 할 수 있는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尸, ㄹ)에서부터 후행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허웅(1985: 321-322)은 중세 ‘미래매김꼴 씨끝’인 ㄹ 뒤에 ㄹ을 부가함으로써 후행 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것이며, “같은 시대 문헌에서 때때로 ㄹ을 쓰지 않고 아랫말의 첫소리를 쌍서로 적은 것”도 역시 된소리되기 현상으로 보았다. 안병희·이광호(1990: 259) 역시 같은 입장이다.

김유범(1999)은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의 경음화 현상이 구성의 긴밀성을 높이기 위한 교체현상이라고 파악하는 방법으로 경음화 현상을 풀이하는 입장이다. 다만 현대국어에서는 같은 구성에서 경음화 현상이 수의적임을 지적하면서 중세국어 관형사형 어미 구성에서 경음화가 일어나기는 하였으며, 그것의 성격이 어미 ㄹ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며 후행요소와의 결합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 입장은 경음화의 기제가 관형사형 어미 ㄹ이 아니라 ‘관형사형 구성’이라는 ‘형태적 조건’이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경음화가 어미 ㄹ의 본래적 특성이 아니라고 파악한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서 “관형사형 구성이 경음화를 일으키는 어떤 요인을 첨가한다.”

는 명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 요인이 어떤 실체를 지니는지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어찌되었든 경음화 현상은 존재하며 관형사형 어미 ‘ㄹ’이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을 완전히 반박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에서 경음화가 일어났으리라는 주장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김문웅(1981)은 관형사형 어미 ㄹ의 분포에 비음이거나 마찰음 등 된소리가 될 수 없는 후행 환경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 근거로 삼아 관형사형 구성에서의 ㄹ은 경음이 아니라 수식성분과 피수식성분 사이의 긴밀함을 표기하는 絶音기호라는 주장이다. 이는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의 다양한 표기를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이긴 하나 ‘절음’기호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¹⁹⁾

신승용(2007)은 흔히 동일한 경음화 현상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중세 국어 ‘- ㄹ평음, -ㄹ+각자병서, ㄹ+평음’ 표기가 질서정연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현대국어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에서 경음화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이영보래 표기가 복원하려는 운미는 ‘t’가 아니라 ‘r’이라는 주장 등을 근거로 중세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이 경음화를 수반하지 않으며, 각자병서는 유성음이라고 주장하였다. 각자병서가 유성음이라는 해석이 국어사 연구에서 면면히 이어온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아직은 주류 입장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다만 신승용(2007)은 이 주장을 여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면에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환기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설내입성 종성이 ‘r’이었다는 주장은 한자음 연구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주장은 唐代 중국 서북방언에서 ‘t>r’ 변화가 있었다는 羅常培(1933)을 이기문(1972)에서 수용한 데서 기원하는데, 최근 한자음

19) 신승용(2007: 413 각주5)도 이 주장이 결국은 된소리와 관련된성을 부정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비판한다.

연구에서는 부정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가령 같은 시기 티베트 전사 자료에서는 설상음(舌上音)이 정치음(正齒音)에 합류하는데 한국한자음에서는 두 부류가 뚜렷이 구분된다(辛祐先 2016: 239, 장준익 2018: 93). 설치음 성모가 중국 서북방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반례인 것이다. 또 동국정운 서문이나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설내입성의 정칙 중성을 端母 ‘ㄷ’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세국어 ‘- ㄹ평음, -ㄹ+각자병서, ㄹ+평음’이 질서정연하지 않다는 지적은 표기법의 혼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각자병서가 유성음이었으리라는 주장 역시 8-9세기 전후 중고 한어 시기의 음가와 15세기 한국어 및 한어음의 음가를 동일시하는 데서 생겨난 오류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이상 여러 논의를 살핀 결과 ㄹ을 두 개의 분절음으로 파악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중성 ㄹ이 중성 ㄹ과 다른 소리이며 두 개의 소리도 아니라면 결론은 단순해진다. ㄹ은 ㄹ에 ㅎ이 부가된 하나의 소리이며, 이 때 ㅎ은 입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4.2. 후두긴장: 이영보래 표기와 관형사형 구성 ㄹ의 공통점

앞에서 ㅎ가 중성으로 쓰인 세 가지 경우(사잇소리, 이영보래,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를 살펴본 바 있다. 사잇소리와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은 경음화 현상을 수반하며, 이영보래는 ‘促急’이라는 입성 성질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 세 현상의 그 공통점은 바로 후두긴장(laryngealized) 자질이다.

ㅎ은 초성의 경우 중고 한어 影母이며, 影母는 보통 성문폐쇄(glottal stop)음 [ʔ]로 재구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대 국어에서 폐쇄음 후행 환경에서는 평음이 경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폐쇄’ 자질로 표시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앞서 살핀 대로 중세

조선은 물론 한어음운학의 문헌에서도 입성의 특성을 빠름[促急]으로만 기술할 뿐 아니라 중세 한국어에서는 종성이 ‘ㄱ, ㄷ, ㅂ’인 음절도 평성, 상성, 거성의 소릿값을 얼마든지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운미 분절음의 종류로서 입성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영보래 표기의 성질로 ‘폐쇄’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현대국어는 물론 중세국어에서도 경음화는 폐쇄음뿐 아니라 마찰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폐쇄와 마찰을 모두 포괄하는 공통의 자질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어사에서 경음의 발생이 마찰음에서 먼저 관찰된다는 언어학적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중세 국어에서 각자병서로 고유어 된소리를 표기한 예는 ‘ㄱ, ㄷ, ㅂ, ㅈ, ㅊ, ㅎ’가 있는데, ‘ㄱ, ㄷ, ㅂ, ㅈ’는 동명사형 어미 ㄹ²⁰ 밑에서만 나타나며 어두음으로는 ‘ㅈ, ㅎ’만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기문 1972:138). 국어의 어두 경음 음소가 마찰음에서 먼저 발달했다는 것은 기류의 폐쇄를 경음의 발생 기제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곤란함을 안겨준다. 이 곤란함은 경음화 현상과 촉급한 종성의 공통점. 바로 후두 자질의 일부인 ‘후두긴장(laryngealized)’ 자질로서 해소된다. 현대 언어학 용어를 사용하면, 이영보래의 ㅎ은 설내입성의 촉급함을 표시하는 후두긴장 자질로서 선택된 것이다.

이로써 훈민정음과 동국정은 편찬자들이 설내입성의 교정 방법의 하나로서 ㄹ을 유지하되 ㄷ을 덧붙이는 ‘ㄷ’ 표기[以端補來]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도 명백해진다. 以端補來는 속음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원칙[因俗]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促急 자질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게다가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에 나타나는 경음화까지 아우를 수 없게 된다.

端母 ㄷ은 조음위치가 구강(舌端)이며 조음방식은 폐쇄, 후두 자질은 무성이다. 影母 ㅎ은 조음위치가 구강이 아니라 후두이며, 조음 방식은 폐쇄,

20) ‘동명사형 어미 ㄹ’라는 용어는 이기문(1972:138)의 것이다. 중세국어 관형사형 어미 ㄹ의 기원을 고대국어 동명사형 어미 ‘尸’에서 찾는 입장에서 취한 태도로 보인다.

후두 자질은 무성 및 긴장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중성을 ‘ㄹ’로 표기하는 방법을 취하면 중성 ㄹ에 이은 마찰음이 기류의 막힘없이 발화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佛道求 흙사르미(月釋15: 60ㄱ)’ 대신 ‘佛道求 흙사르미’로 표상하는 것은 무리였다. 15세기 조선의 운학가들은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하여 ㄹ중성 표기를 고안해 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현대음성학의 조음과 발성 유형 연구를 전제로 하는 설명법일 수 있으나, 五音의 자질이나 성조값에 대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밀한 기술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도의 관찰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4.3. 이영보래의 기원과 ㄹ중성 음절의 음운론적 성격

이제까지 살펴본 결과 이영보래 표기와 중세 국어 관형사형 어미 ㄹ 구성의 ㄹ 표기는 후두긴장 자질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한자음 표기와 고유어 표기 양쪽에서 ㄹ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15세기 조선의 운학가들은 두 환경에 나타난 음운현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ㄹ 표기라는 특이한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영보래 표기와 관형사형 구성 ㄹ 표기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익섭(1992: 78)은 “동국정운 한자음 표기를 위해 ㄹ을 먼저 고안해냈다가 관형사형 어미 -ㄹ 다음에 이 글자를 쓸 수 있겠다고 그 용도를 찾아낸 것은 그 후의 일”이라고 간략히 추측한다. 그러나 해례본의 중성 해에서 먼저 설내입성을 ‘ㄷ’으로 먼저 교정해 보였음(별 爲 驚)을 감안하면 한자음 설내입성 표기에 후음 전처자인 ㅎ를 쓰는 방법을 고안한 것은 훈민정음 창제나 동국정운 편찬 이후의 일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영보래 표기와 고유어 관형사형 어미 ㄹ의 음성학과 음운론적 성격을 생각해 본다. 두 표기의 ㄹ은 모두 ㄹ에 ‘후두긴장된 자질’이 부가된, 즉 없던 것을 표시하고 있다.²¹⁾ 이것은 ‘ㄹ+후두긴장’이라는 음의

21) 후음은 牙·舌·脣·齒音과 같이 조음위치에 의하여 규정된 범주이지만, 조음위치가

연속이 아니라, 음소 ㄹ의 변이음인 ‘후두긴장 ㄹ’이라 함이 온당하다. 가령 관형사형 어미 ㄹ구성에서 ‘ㄹ₂종성으로 표시된 음절’ 혹은 후행 평장에음을 경음화시키는 관형사형 어미 ‘ㄹ’을 취하는 음절의 ㄹ은 [후두긴장된]이라는 음성학적 실체로 표상될 것이다. 이때의 종성은 [l^{+laryngealized}] 혹은 [ㄹ^{+laryngealized}]이라는 변이음으로 표시된다.

이 음의 음운론적 위치를 생각하려면 음절의 종류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동국정운 한자음 이영보래의 경우 종성의 來母는 [l^{+laryngealized}] 혹은 [ㄹ^{+laryngealized}] 하나만으로 나타난다. 한자음 종류를 종성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전승한자음과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집합은 다음과 같이 대비된다.

전승한자음의 종성 종류: ㄱ, ㄴ, ㄹ, ㅁ, ㅂ, ㅇ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종성 종류: ㄱ, ㄴ, ㄹ₂, ㅁ, ㅂ, ㅇ, ㅅ, ㅈ

종성을 지니는 전승한자음은 입성운 2개(ㄱ, ㅂ 종성)와 陽聲韻 4개(ㄴ, ㄹ, ㅁ, ㅇ)다.²²⁾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입성운 3개(ㄱ, ㄹ₂, ㅂ), 陽聲韻 5개(ㄴ, ㅁ, ㅇ, ㅅ, ㅈ)가 된다.²³⁾

한편 설내입성에 주목하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집합에서는 종성의 종류가 [ㄹ^{+laryngealized}] 하나뿐이다. 이 경우 설내입성의 종성은 음성학적으로 초성의 來母와 다른 종류로 의도되었을 것이다.

구강 또는 그에 바로 인접한 아설순치음과 달리 후음은 주로 성문 주변의 후두 부위에서 생성되는 특성이 있다. 후두와 관련된 조음의 특성에 聲(voicing), 기식(aspiration), 긴장성(tense)의 유무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흥미로운 점은 후두에서 생성되는 유성-무성, 유기-무기 자질이 아설순치 계열 분절음에 부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후음은 온전한 음소로서뿐 아니라, 다른 음소에 음운자질을 부가하는 특성이 있다. ㄹ₂의 ㄹ도 이러한 자질 기능을 하는 것이다.

22) 종성을 지니지 않는 陰聲韻은 생략한다.

23)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양성운에서 ‘ㅇ, ㅈ’ 종성의 음가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간주하면, 양성운은 3개가 되며 이는 입성운 수 3개와 같다. 양성운인 ‘ㄹ₂종성 음절’을 ‘ㄹ~ㄹ₂’ 교체 표기를 통해 입성운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음절 종류 집합에 관한 논의를 중세 국어 전체로 넓히면, 설음 계통의 음소는 ‘초성의 ㄹ[r], 중성의 ㄹ[l], 중성의 또 다른 ㄹ[^{laryngealized}]과 같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변이음 셋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ㄹ[^{laryngealized}]은 바로 관형사절 구성에 나타나는 ㄹ인 것이다.

4.4.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성에 대한 재음미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본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고유어까지 포함한 15세기 한국어의 음절 종류 집합에 포함시킬 것인가. 본고는 물론 여기에 부정적이되, 그 이유를 새롭게 명시해 본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15세기 한국어 집합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성의 문제. 동국정운식 한자음에는 자연언어에 존재하는 음운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오직 하나의 기저음을 지닐 뿐이며 음운환경에 따른 교체, 탈락 등 아무런 과정을 보이지 않는다. 來母가 어두에서 탈락하거나 泥母로 교체되는, 이른바 두음법칙 혹은 어두제약에 구애받지 않으며, 후행음이 한자음이든 고유어음이든 교체도 탈락도 없다. 동국정운식으로 주음된 개개 한자음 음절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지만, 음운 환경과 결합되는 과정은 부재하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자 구속성이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한자와 병기될 때에만 나타난다. 즉 한자어라 하더라도 한글로만 표기될 때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물론 사이시옷이 합철되거나 조사 ‘ㅣ’나 계사 ‘ㅣ’가 한자음 음절의 일부로 결합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한글로만 표기될 때에는 항상 전승 한자음으로 나타나며 성조도 일관되게 표기된다. 사이시옷 삽입과 같이 국어의 형태, 음운 현상에 포섭되도 물론이다.²⁴⁾

24) 아래 예에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 []로 표시하여 방점까지 표시한다. 그 밖의 부분에서는 편의상 한자음과 방점을 표시하지 않는다.

- (가) ㄱ. 사르미 무레 사니고도 [중싱]마도 몬호이다 (釋詳6:5ㄱ)
 ㄴ. 畜生은 사르미 지비서 치는 [중싱이]라 (月釋1-46ㄴ)
 ㄷ. 一切衆生[·일:체:중싱]이 두 모미 잇느니 (六祖 中85ㄱ)
 ㄹ. 慈悲는 [衆生·중싱]을 便安키 흐시는 거시어늘 (釋詳6:5ㄴ)
- (나) ㄱ. 중과 · 승과 여러 子息 나하 (釋詳23:55ㄱ)
 ㄴ. 法과 僧[승]과 곁흐야 일흠 지호니 (釋詳13:59ㄴ)
- (다) ㄱ. 奇異는 [常例쌍·렝]롭디 아니홀씨라 (月釋2:67ㄴ)
 [상·넛]사르민 煩惱를 몬 떠러브릴씨 (月釋1:12ㄱ)
 ㄷ. 有頂天이라도 흐느니 大千界에 爲頭흐니라 (釋詳21:11ㄱ)
 三千大千世界龍王스 中에 못 [위두]흐
 無邊莊嚴海雲威德輪蓋龍王이(釋詳6:11ㄱ)
 上願은 爲頭[윙똥]흐 願이라
 上願은 [위두]흐 願이라(釋詳9: 10ㄱ)

(가-ㄱ, ㄴ, ㄷ)은 한자어 衆生에서 기원한 단어가 의미의 분화에 따라 방점이 달라짐(ㄱ, ㄷ)은 물론 중성 ‘ㅇ’이 연결되어 후행하는 계사 ‘ㅣ’의 초성 자리에 쓰이기도 함(ㄴ)을 보인다. 그런데 (가-ㄹ)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적용된 예로서 衆의 방점이 거성이며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폐기된 육조단정의 방점(상성)과도 다르다. 같은 의미의 ‘중생’이되 정음으로 표시 될 때와 한자에 병기된 동국정운식 한자음일 때의 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호권(2001: 182~192)은 한자어가 주음자에게 친숙한 경우, 즉 한자어가 고유어화하는 과정에서 그 有緣性이 의식되지 않았을 경우 정음으로만 표기하여 전승한자음을 썼기 때문이라 풀이한다.²⁵⁾ (나)에서 僧에서 기원한 한자어가 정음으로만 표시될 때 ‘중[비구]’과 ‘승[비구니]’으로 갈려 나타난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하고 성조를 포함하여 한어의 본래

25) 위의 (가)(나) 역시 이호권(2001:181~182)에서 가져온 것이다. 다만 (가- ㄴ)은 본 연구에서 추가하여 논한 것이다.

음에서 벗어난 정음 표기 단어는 한자어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호권(2001)의 풀이는 한자음 표기를 한자어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서는 존중하지만, 동국정운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시각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즉 한자어의 유연성이 분명한 경우에도 한자 없는 정음 표기 때에는 전승한자음 그대로 표기하는 원칙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충실한 문헌에서는 철저히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는 ‘常例’와 ‘爲頭’ 두 한자어가 한자와 병기될 때와 정음으로만 표기될 때 그 음이 뚜렷이 다름을 보여준다. 이들은 의미의 차이도 없지만 한자로 표기될 때에는 엄격한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한자가 없을 때에는 전승한자음 그대로 나타난다. 이 원칙은 방점에도 일관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음자에게 한자어라는 의식이 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한자와 병기할 때에만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주음한다.”는 원칙, 즉 문자 구속성이라는 원칙이 엄격히 견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이제까지 무수히 지적되어 왔던 동국정운의 인위성과 보수성에는 그 음운체계의 성격과 별개로, 언어 변화는 물론 음운과정이라는 자연언어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편찬자들의 노고나 의욕과 달리 전승한자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의 하나를 시사하는 것이다.

5. 결론 및 남은 문제

이제까지 고찰한 바를 정리하며 후속할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덧붙인다.

1. 以影補來 ㄹ 표기는 동국정운 서문 ‘以端補來因俗歸正’에 명시된 대로 전승음을 유지하면서도 입성을 온전히 교정하는 방법이었다. 동국정운 편찬자들이 인식한 입성의 본질은 빠름(促急)으로서 입성 음절은 音高

와 促急 자질을 동시에 취할 수 있었다.

2. 이영보래 ㄹ은 ㄹ과 다를 뿐 아니라 ㄹ과 ㄴ의 연속 발음도 아니며, 후두긴장 자질이 더해진 ㄹ의 변이음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ㄹ을 ㄷ으로 대체하거나(以端代來), ㄹ을 유지하고 ㄷ을 덧붙이는 방법(以端補來) 대신 ㅎ을 보충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한국어의 음운현상에서 사잇소리와 관형사형 -ㄹ 구성까지 포함하여 관찰한 결과물이었다. 즉 폐쇄음뿐 아니라 마찰음에서도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에서 ‘후두긴장’ 자질을 포착한 것이었고, 그에 적합한 표기로서 후음 전청자 ㅎ을 선택한 것이다.

3. 동국정은 편찬자들은 ㄹ중성을 후두긴장된 ㄹ 그대로 발음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 경우 음절 종류로는 ㄹ중성 음절로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 전체 음절 종류 집합에서는 제 지위를 지닐 수 없다. 동국정은 한자음은 주변 음과 음운과정을 전혀 갖지 못하는 單 한자음이며 오직 한자와 병기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실제로 동국정운식으로 발음되었다 하더라도 후행 음과의 음운과정을 생성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남은 문제로는 중세국어 경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우선 꼽는다. 이 연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ㄹ에 수반되는 경음화 현상을 살펴보았으나, 이것의 기원이 되는 고대국어 동명사형 어미(尸) 관련 경음화 문제, 그리고 중세 국어 고유어 경음 표시에 활발하게 쓰였다고 인정되어 온 ㄱ계 활용 병서의 문제도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국어의 경음과 경음화 문제는 공시, 통시적으로 큰 연구 영역에 속한다. 계속된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신항, 『(수정정보)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 김문웅, 『15세기 국어의 ㄹ중성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김민수, 『전정판 신국어학사』, 일조각, 1980.
- 김유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 『한국어학』 10집, 1999, 5~25쪽.
- 남광우, 『동국정운식 한자음 연구』, 한국연구원, 1966.
- 唐作藩 채영순 역, 『漢語語音史』, 학고방 (『漢語語音史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8.
- 董同龢 공재석 역, 『漢語音韻學』, 범학도서 (『漢語音韻學』, 臺北: 廣文書局), 1975.
- 박병채, 『홍무정운역훈의 신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3.
- 신승용, 「‘-ㄹ평음’과 ‘-ㄹ+각자병서’, ‘-ㄹ+평음’ 재론」, 『동아인문학』 12, 2007, 411~438쪽.
- 안병희, 「훈민정음(해례본) 3제」, 『진단학보』 93집, 173~197쪽.
- _____. 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1990.
- 유창균, 『동국정운연구: 연구편』, 형설출판사, 1966.
- 이기문, 『국어사개설 신정판』, 태학사, 1972/1998.
- 이동립, 『동국정운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70.
- 이승녕, 「홍무정운역훈의 연구」, 『진단학보』 20, 1958, 296~331쪽
- 이익섭,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2.
- 이지영, 「중고 한어 성조 연구」, 『중국어문논집』 53호, 57~73, 2008.
- 이호권,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태학사, 2001.
- 입, 모이라 Yip, Moira 손남호 역, 『성조』, 역락, 2013, Yip, Moira (2002), *To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장준익, 「한국어의 음절 특성을 통해 본 ‘t’ 입성 한자음의 수용 양상」, 『구결연구』 41호, 2018, 89~127쪽.
- 정경일, 『한국운서의 이해』, 아카넷, 2002.
- 정인승·성원경, 「동국정운 연구」, 『건대학술집』 15집, 1973, 45~84쪽.
- 정진강, 「중국어 성조의 기원과 발전」, 『중국문학연구』 15집, 1998, 223~250쪽.
- 조운성, 『동국정운의 성모와 운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차익중, 『동국정운식 한자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 허웅,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1985.
- 홍기문, 『정음발달사(상하)』, 서울신문사, 1946.
- _____ 저, 이상규 외 주해, 『증보정음발달사』, 역락, 2016.
- 河野六郎, 『朝鮮漢字音の研究』, 東京: 天理時報社, 1968.
- 北京大學中國語文學系 語言學教室編, 『漢語方言詞彙』(第二版), 北京: 語文出版社, 1995.
- 羅常培, 『唐五代西北方音』, 上海: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單刊 甲種之十二, 1933.
- 唐作藩, 『音韻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 丁邦新, 『平仄新考』, 『丁邦新語言學論文集』, 北京: 常務印書館, 64~82面, 1998.
- 王力, 『語言學詞典』,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5.
- 辛祐先, 『論韓國漢字音ㄷ/-l韻尾』, *Language and Linguistics* 17(2), Taipei: 2016, pp.235~263.
- Gao, Hallé and Draxler, “Breathy voice and low-register: a case of trading relation in Shanghai Chinese tone perception?”, *Language and Speech* vol.63(3), 2020, pp.582~607.
- Mei, Tsu lin 梅祖麟, “Tones and Prosody in Middle Chinese and The Origin of The Rising Ton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30, Cambridge: Harvard-Yenching Institute, 1970, pp.86~110.
- Yip, Moira, *The Tonal Phonology of Chinese*, MIT PhD dissertation, 1980.
(<https://dspace.mit.edu/handle/1721.1/15971>)
- Zhu & Wang, “Tone”, in Wang and Sun ed., *The Oxford Handbook of Chinese Linguis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503~515.

Abstract

The Origin and Phonological Features of ㄷ, or Yǐyǐngbǔlǎi(以影補來)
 - on the transcription of coda ‘-t’
 of Middle Chinese in *Donggukjeongun* style Sino-Korean -

Cha, Ik-Jong*

The *Donggukjeongun* (1447) 東國正韻 corrected the ending ‘ㄷ’(/-l/) in Sino-Korean uniformly to ㄷ, which was dubbed yǐyǐngbǔlǎi (以影補來). Many scholars have agreed that this unique transcription was devised to restore the original entering tone. But why the compilers of *Donggukjeongun* did not choose ‘ㄷ’(t) rather than ㄷ’?

Actually the well-known description in *Hunminjeongeum Haerye* admits that ‘ㄷ’ should be used for the position of Sino-Korean ending ‘ㄷ’(/-l/). The effective answer would be that one of the principle of *Donggukjeongun* was to respect the traditional or vernacular Sino-Korean. The compilers would have tried to re-construct the tonal system while keeping the ending ‘ㄷ’(/-l/) intact.

Why not ‘ㄷ’? If they wanted to preserve the vernacular ending, ‘ㄷ’ would be an option. There must have been, however, an inevitable reason here: they needed a mark or sign for the feature of entering tone. It is ‘ㄷ’ that could effectively have taken this function.

In Korean phonology, the syllable endings ‘-p, -t, -k’ carry with them the reinforcement process: plain obstruents alternate with reinforced ones after ‘-k, p, t’. Another reinforcement process occurs in position following the adnominal ending (-ㄷ). In 15th Korean, ㄷ is closely related with the latter process: (1) 反側 홀 사르말 (2) 나고져 홀 사르문 (3) 求 홀 싸름. These examples are considered to be the equivalentents of reinforcement phenomena. The environment of the adnominal construction is accompanied by the use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ㅇ', where 'ㅇ' functions as reinforcement feature.

The reinforcement feature of 'ㅇ' would be [+laryngeal], rather than the so-called 'glottal stop' as is frequently referred to. The reinforced fricatives (ㅃ, ㅆ in Middle Korean) do not have any feature of stop, since the auditory nature of fricatives do not hold the phase of stop. It needs to be reminded that every consonant has 3 parameters: places of articulation, manners of articulation, and the phonation types. The three parameters of 'ㅇ' would be glottis (place of articulation), stop (manner of articulation), and laryngeal tenseness (phonation type). The compilers of *Donggukjeongun* would have so effectively captured the feature of phonation type in 'ㅇ' from the adnominal construction of native Middle Korean, and proceeded to apply it to the form of yǐyǐngbūlǎi (以影補來) for their new standard Sino-Korean.

Key Words: yǐyǐngbūlǎi (以影補來), *Donggukjeongun* style Sino-Korean, entering tone, adnominal ending (ㄹ), reinforcement process, ㅇ as feature of [+laryngeal].

<필자소개>

이름: 차익중

소속: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자우편: chafaust@gmail.com

논문투고일: 2021년 1월 24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3일